

털숭숭이에게

안녕, 털숭숭아? 난 네가 나오는 책을 읽고 너무 재미있었어. 난 널 그림
책에서 처음 봤을 때 조금 무서웠어. 마시멜롱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어.
그런데 나중에 한 마시멜롱이 널 도와준 다음, 네가 더 귀여워 보이더라.
마시멜롱들에게 큰 오해를 받아 얼마나 속상했을 까? 그래도 마시멜롱들이
손 불이나 화살들에 아무 피해를 입혀지 않아서 다행이야. 그리고 한

마시멜롱 덕분에 금방 이를 고칠 수 있어서 다행이야.

너는 어떤 세상에서 왔는지 궁금해. 가족은 있어?

마시멜롱 마을처럼 털숭숭이 마을은 따로 있어?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는
2년 전 엄마랑 같이 도서관에 가서 체험을 했을 때였어. 이 책을 읽고
검은색 양말로 너를 인형으로 만들었어. 혀를 뱌주족 내밀은 표정을 만들었지.
지금도 있어! 너무 귀여워! 양말 안에 솜을 아주 두툼하게 넣었어.
엄청 땡땡해서 그걸로 맞으면 엄청 아플 것 같아. 초록 형광색
천에 검은 점을 그려서 붙여놔야. 걱정하지마. 깨끗한 양말이니까.
귀랑 손이랑 입을 바느질 하는데 내가 바느질을 하는 방법을 잘 몰랐어
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도와 주셨어. 요즘 바느질 해서 붙인
손이랑 귀가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솜이 빠지려고 해
엄마한테 부탁해야겠어.

네가 나온 책의 작가가
'이지은' 이서. 그래서



이지은 작가가 쓰신 다른 책도 읽어봤어. '팥빵수의 전설' 그리고
'친구의 전설'도 읽어봤어. 다 그림이 귀여워!
치형교실에서 널 만든 아들이 많아가지고 넌 여러 개였어.
지금 너는 내 칭대에 세워져 있어. 다음에 널 또 만들 생각인데
어떻게 만들어 줄까? 일단 엄마한테 비난될까 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어.
눈도 귀엽게 만들어 줄까? 입은 웃고 있는 걸로 만들면 좋은
것 같다. 이번에는 발도 만들까? 지금 발이 없어서
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해. 털 색깔은?
난 흰색이 예쁠 것 같아! 생각해보고 꼭 답장해주면 좋겠어. 안녕!

2022년 8월 10일

어마도 너가 강아지인걸 알아챈 너의 왕편이

